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쫓겨남’의 의미와 신화적 성격

정제호*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삼공본풀이」의 전승양상
- III. 가문장아기의 존재 변화를 통해 본 ‘쫓겨남’의 의미
- IV.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 V.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삼공본풀이」가 갖는 신화적 성격을 밝힌 글이다. 「삼공본풀이」 서사에서 가문장아기는 크게 두 공간에서 활약한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인 ‘친정’이고, 하나는 집을 떠나 새로 정착하고 또 혼인까지 하게 된 ‘시택’이다. 이 두 공간에서 가문장아기가 추구하는 지향은 큰 변화를 보인다. 먼저 친정에서 가문장아기는 그녀에게 주어진 ‘부’라는 복을 자신한다. 이에 부모를 거스르고, 자매와 대립하게

* 국립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학술연구대우교수

된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부유함이라는 복이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한다. 부는 가졌지만, 화목한 가족은 갖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문장아기는 집에서 쫓겨남을 계기를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마통 이와 결혼한 가문장아기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부모와의 대립으로 집안 전체를 파국으로 이끈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바꾸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돕는다. 즉, 가문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복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말에서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찾기 위한 걸인 잔치까지 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문장아기는 단순히 주어진 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가는 복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공본풀이」는 무속에서 바라보는 운명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쫓겨남을 계기로 운명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즉, 운명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고이다. 실제로 무속에서는 신의 뜻으로 정해진 운명을 중요시 하면서도, 나쁜 운명을 신에게 정성을 다함으로써 바꿀 수 있게 한다. 이런 무속의 운명에 대한 이중적 사고가 「삼공본풀이」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삼공본풀이」가 바로 운명을 관장하는 신인 전상신의 본풀이가 되는 것이다.

[주제어] 「삼공본풀이」, 가문장아기, 쫓겨남, 전상신, 운명관

1. 들어가며

제주도의 심방들은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를 가장 중요한 신화로 여기며 “초공은 신빨리, 이공은 꽃빨리, 삼공은 전상드리”¹⁾라고 지칭한

1) 어느 임신 위주리깁, 시님 초공상시당, 초공성하르바님 서카여리 초공 성할마님 서가무니 초공웨하르바님 천하임정국대감 초공 웨할마님 지에 집진국부인 초공 아바님 황금산도단땅 주젓대선성 초공 어머니 이산줄이 번고 저산줄이 번어 왕대월성 금하늘 노가단풍 죽지맹왕아기씨 초공 큰 아들 신구월 초오드레 본맹두, 여레드레 신맹두, 수무으메 살아살축삼맹두 안초공의 신의성방 몸받은 신공시로 살려옴고 밧초공 연양탁상우전, 초공은 신빨리 뒤웁니다. 살려옴서.

다. 「초공본풀이」의 경우 제주도 ‘무조신(巫祖神)’의 기원신화이니 그 신화적 성격이 명확하다. 「이공본풀이」 역시 제주도 무속의 근간이 되는 ‘꽃’과 이 꽃을 관장하는 ‘꽃감관’의 내력을 푸는 신화로 명확한 신격이 드러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삼공본풀이」의 경우 신화적 성격도, 또 해당 무가의 주신(主神)이라 할 수 있는 ‘전상신’의 성격도 모호하다. ‘전상’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달리 마구 술을 먹거나 해괴한 짓을 하여 망치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전상이 붙으면 그 행위를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다. 도둑질을 하여 몇 번이고 감옥에 출입해도 역시 도둑질할 마음을 일으키고, 노름을 시작하면 뱉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다 전상 때문이며 나아가서 농(農)·공(工)·상(商) 등 갖가지 직업을 택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전상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²⁾ 이를 근거로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전상을 운명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³⁾ 정해진 운명을 따르는 것이 전상이니, 그 전상을 차지한 신은 ‘운명신’인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공본풀이」의 내용 역시 ‘복(福)’을 갖고 태어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화의 내용과 신격의 기능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삼공본풀이」의 주인공인 가문장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운명을 대하는 방식이 작품 내에서 달라지고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운명을 그저 받아드리는 것이 전상신의 기능이라면, ‘삼공맞이’ 제차가 갖는 “제의를 통해 사(邪)를 쫓는 행위”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삼공본풀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상신이 갖는 기능과 작품의 내용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논의는 부족

이궁 서천도산국, 집진국도 상시당 원진국도 상시당, 원강아미, 원강도령, 황세곤간 도세곤간 꽃감관 꽃쟁인 살려옵서. 이공은 꽃뿔 리가 뉘옵네다. 탁상우전 살려옵서. 안이공은 몸뻬은 신통시로 살려옵서. 밧이공은 탁상전으로 살려옵서.

삼공안땅주년국, 올라 옷상실, 느려 제상실, 강이영성이서불, 궁에궁신산마투리, 가문장아기, 늦장아기, 나뉘 ㄱ똥 나뉘전상, 드뉘 ㄱ똥 드뉘전상, 신구산대전상님도 살려옵서. 안삼공은 신통시로 살려옵고, 밧삼공은 연양탁상전 살려옵서. 삼공은 전상드리 뉘옵네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59-60면.

2) 위의 책, 756면.

3)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89, 18-19면.

4) 현용준, 앞의 책, 756면.

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전상신의 성격과 「삼공본풀이」 서사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삼공본풀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몇 가지 흐름으로 묶어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논의마다 그 결을 달리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유형의 연구들이 반복된 것도 사실이다. 「삼공본풀이」 연구의 시작은 대체로 「내 복에 산다」 유형의 설화와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 과정을 고구(考究)하는 내용의 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내 복에 산다」 유형의 민담이 「삼공본풀이」와 많은 유사성을 드러내면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들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⁵⁾

두 번째 흐름은 「삼공본풀이」 서사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이다.⁶⁾ 일반적으로 서사 구성이 갖는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삼공본풀이」 서사를 단락에 따라 나누고, 서사 진행의 구조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문장 아기가 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주목한 논의들이라 하겠다.

세 번째 흐름은 여성주의 시각으로 「삼공본풀이」를 바라본 연구들이다.⁷⁾ 가문

- 5) 장주근, 「(풀어쓰는)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김석배, 「「내 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2; 황인덕, 「불전계 한국민담 연구」, 『어문연구』 17집, 어문연구학회, 1988; 황인덕, 「「내 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집, 어문연구학회, 1988;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논문, 1993. 「내 복에 산다」 유형 이외에 「서동요」와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 정운채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겨레어문학』 19·20집, 겨레어문학회, 1995; 정운채,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 힘의 유래 :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25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6)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7)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00;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 황명숙,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32-2집, 한국분석심리학회, 2015; 하경숙,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은지논총』 48집, 은지학회, 2016.

이 밖에 설화 「내 복에 산다」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이들

장아기는 다른 서사문학의 여성 주인공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주체성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이런 가문장아기의 특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었고, 이들 연구에서는 작품 내에 드러나는 여성의식을 중점적으로 찾고자 하였다. 여성 주체의 자각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삼공본풀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삼공본풀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논의된 바 있다.⁸⁾ 다만 연구의 흐름이 지나치게 가문장아기가 보이는 주체성에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집중은 가문장아기가 갖는 특별함에 대해 주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주체성이 발현되는 세밀한 차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삼공본풀이」에서는 가문장아기가 온전히 주체성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즉, 주체성의 발현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연속적으로 제출되면서, 이런 가문장아기가 보이는 주체성이 실제 제의나 신격의 기능과 어떻게 맞닿는지는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부분에 주목하면서 정작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와 맥락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성격에 대해 다시 한 번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작품 전반의 특성을 살피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주인공 가문장아기의 행동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특히 가문장아기는 집에서 쫓겨나 마통이의 집에 기거하는 과정에서 큰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문장아기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상신이 갖는 운명에 대

연구에 대한 정리는 정규식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정규식, 「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온달서동. 「내 복에 산다」 설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14집, 동남어문학회, 2002, 170-171면.

- 8) 이밖에 「삼공본풀이」의 공간 구조에 주목한 김미숙의 연구,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으로서 「삼공본풀이」에 주목한 신동훈의 연구,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삼공본풀이」를 조망한 조영주의 연구, 무속적 효에 대해 논한 신태수의 연구, 「삼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사록에 대한 고은영의 연구 등도 「삼공본풀이」에 대한 논의 중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다.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집」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조영주,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이어쓰기 활동의 문학치료적 의의 연구」, 『겨레어문학』 46집, 겨레어문학회, 2011; 신태수,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무속적 효윤리의 방향」, 『영남학』 30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고은영, 「사록의 의미-「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9집, 영주어문학회, 2018.

한 인식까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이 ‘쫓겨남’을 중심으로 하여 「삼공본풀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삼공본풀이」의 전승양상

「삼공본풀이」는 큰곳에서 주요한 거리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많은 각편이 조사된 바 있다. 다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런 각편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전반적인 각편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까지 여러 심방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 온 만큼 전반적인 각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공본풀이」 각편은 다음과 같이 조사된 바 있다.

[표-1] 「삼공본풀이」 각편 현황

연번	조사자	각편명	구연자	출처	발표연도
1	赤松智城 秋葉隆	삼공본풀리 (三公本解)	박봉춘	『조선무속의 연구』 상	1937
2	현용준	삼공본풀이	안사인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1980
3	진성기	삼공본	김계림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1991
5	문창현	삼공본	문정봉	『풍속무음』 上(필사본)	1994
6	문무병	삼공본풀이	이승순	『제주도 무속신화』	1998
7	조영배 강정식	삼공본풀이	이중춘 김윤수	『한국음악』 31	2000
8	문무병	삼공본풀이	한생소	『제주도 큰곳자료』	2001
9	장주근	삼공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1999
10	허남춘 외	삼공본풀이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9
11	허남춘 외	삼공본풀이	양창보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12	허남춘 외	삼공본풀이	고순안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3
13	허남춘 외	삼공본풀이	서순실	『서순실 심방 본풀이』	2015

여러 조사를 통해 각편이 축적되었지만, 그 내용 구성은 유사한 편이다. 여러

각편 중 본고에서는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안사인본은 일반적으로 서사성이 풍부하여 선본(善本)으로 주로 다루어지곤 한다. 이에 먼저 안사인본 「삼공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하여 논의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⁹⁾ 물론 필요한 경우 다른 각편들도 참고할 것이다.

- ① 윗마을 거지 강이영성이서불과 아랫마을 거지 홍은소천궁에궁전궁납은 시절 좋은 마을로 서로 얻어먹으러 갔다 만나 부부가 된다.
- ② 가난한 부부가 딸아이를 낳자 동네사람들이 은그릇에 밥을 해 먹이며 키워, 이름을 은장아기라 하였다.
- ③ 가난한 부부가 둘째 딸아이를 낳자 동네사람들이 놋그릇에 밥을 해 먹이며 키워, 이름을 놋장아기라 하였다.
- ④ 가난한 부부가 셋째 딸아이를 낳자 동네사람들이 나무그릇에 밥을 해먹이며 키워, 이름을 가문장아기라 하였다.
- ⑤ 세 아이가 태어난 후 천하 거부가 된다.
- ⑥ 부부는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행위발신(行爲發身)하는지 묻는다.
- ⑦ 첫째, 둘째는 아버님, 어머님 덕이라고 하지만, 셋째 가문장아기는 자기 선그릇¹⁰⁾ 덕이라고 답한다.
- ⑧ 부부는 가문장아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 ⑨ 내쫓고 난 후 섭섭한 마음에 가문장아기를 다시 부르려 했으나, 첫째, 둘째가 시기하여 반대로 전한다.
- ⑩ 언니들의 음모를 안 가문장아기는 은장아기를 지네로, 놋장아기를 버섯으로 만들어 버린다.
- ⑪ 딸들이 오지 않자 찾으러 나온 부부는 액방에 부딪혀 봉사가 되었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다시 거지가 된다.
- ⑫ 집을 떠난 가문장아기는 마통이 삼형제 집에 기거하게 된다.
- ⑬ 가문장아기는 착하고 효심이 깊은 셋째 마통이와 혼인을 한다.
- ⑭ 가문장아기는 남편과 함께 마를 캐러 간다.
- ⑮ 첫째, 둘째 마통이가 판 곳은 풍과 벌레가 가득했지만, 셋째 마통이가 판 곳은 금과 은이 가득 있었다.
- ⑯ 부자가 된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연다.

9) 이후 인용에 있어서 편의상 ‘안사인본’으로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10) 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리 그어진 선

- ⑰ 가문장아기는 일부러 부모를 가장 늦게 대접한다.
 ⑱ 가문장아기가 술을 따라 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부모의 눈이 떠진다.

「삼공본풀이」 서사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공본풀이」는 ‘부(富)’라는 복을 갖고 태어난 가문장아기¹¹⁾가 태어나서 신으로까지 좌정하는 과정에 대해 그린 신화이다.¹²⁾ 특히 이 과정에서 가문장아기는 집안의 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하기도 하고, 결혼 후에는 시댁을 부자로 만들기도 한다. 이런 가문장아기의 성격은 고전서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것은 대체로 집안을 위한 ‘희생’이다.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의사를 확고히 한다. 이런 이유로 가문장아기의 성격을 주체적 여성으로 해석하기도 한 것이다.

다만 「가문장아기」 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늘 행복하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다. 부모와의 불화로 집에서 쫓겨나고, 자매들과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가난한 마통이에게 시집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가문장아기의 위기는 그녀가 다시 한 번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롭게 복을 찾는 과정에서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의 행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문장아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다음 장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1) 이런 이유로 허남춘은 가문장아기가 부와 복을 주재하는 신이며, 그 풍요는 여성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유를 이면에 담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115면.

12) 다만 안사인본 「삼공본풀이」 서사에서 직접적으로 가문장아기가 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더욱 전상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른 각편에서는 가문장아기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밝히는 부분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박봉춘본에서는 가문장아기가 “저는전상차지로인간의나왓사오니 부모님이부자로살게된것도 제가잇기때문이엿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전상신임을 밝힌다.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271면.

III. 가문장아기의 존재 변화를 통해 본 ‘쫓겨남’의 의미

「삼공본풀이」에서는 가문장아기가 삶을 영위하는 두 공간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태어나서 성장한 자신의 집이다. 이후 서사에서 혼인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친정’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된다. 두 번째 공간은 집에서 쫓겨나 머물다가 마통이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집이다. 이 공간은 ‘시택’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가문장아기는 친정에서도 시택에서도 집안에 부를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그녀가 갖고 태어난 ‘선그릇’은 그녀가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징표이다. 하지만 그 부를 받아드리고, 또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된다. 즉, 친정에서 쫓겨남을 계기로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친정에서의 가문장아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은소천궁에궁전궁납은 천하의 거지였지만, 세 딸을 낳은 후 부자가 된다. 그들에게 주어진 부는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오만이 싹트게 한다. 이런 오만의 결과는 집안에 부를 가져다주는 존재였던 막내, 즉, 가문장아기를 쫓아내기에 이른다. 가문장아기가 떠난 집은 이내 망하게 되고, 심지어 부부는 눈까지 멀고 만다.

그런데 이런 파국에서 가문장아기 역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가문장아기는 분명 ‘부’라는 복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 하지만 그 부를 자신에게 기인한 것이라 말하는 순간 그녀는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받는 존재로 전락한다. 부를 가질 순 있었지만 가족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 가문장아기를 ‘행복’하다 말할 순 없을 것이다. 부모형제를 모두 버리고도, 또 그들에게 버려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가문장아기에게 주어진 부라는 복은 행복이 아닌 불행의 결과를 맞이하게 한 것이다.¹³⁾

이렇게 볼 때, 친정에서의 가문장아기는 그들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얻은 부모

13) “이런 불효막심헌 예즉식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빨리 나고 가라.” 어명 눈에 굴리나고 아방 눈에 시찌 나 입단 입성 거더설러 감은 암쇄에 시찌 놓고 먹고 먹은 균량 시찌놓고 나고 간다. “어머님아, 잘 살아십서. 아바님아, 잘 살아십서.” 안사인본 169면.

인해 오만했던 것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복에 지나치게 자신했다는 것이다. 이런 복을 그녀는 결코 숨기지 않았고,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부모와 대립하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물론 집안의 부가 그녀가 갖고 태어난 복에 의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오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 역시 부모에게서 낳고 자란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그녀는 전통사회의 효라는 윤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¹⁴⁾

더욱이 자신을 시기한 두 언니를 지네와 버섯으로 만드는 등 가족과의 대립을 멈추지 않는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과 모두 대립하고, 또 그들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문장아가 보여주는 성격은 전통사회의 윤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자신의 의지만을 중요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만 의존하는 인물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복은 부는 가져다주었지만,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은 함께 가져다주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가문장아기의 성격은 집에서 쫓겨남을 계기로 바뀌게 된다. 일정한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시댁에서 보이는 가문장아기의 행위들로 파악할 수 있다.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몸을 의탁하게 된다. 그곳에서 가문장아기는 마통이 세 형제를 만난다. 가문장아기는 이들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신랑감을 고르는데, 신랑감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에 대한 ‘효’이다. 가문장아기는 마통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과 자신이 차려준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을 고른다. 자신이 불효를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것을 고려한다면,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극단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14) 신태수는 유교적 효윤리에서는 자식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무속적 효윤리는 이와 달리 부모는 잘 섬겨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 신태수, 앞의 글, 239면.

15) 죽은 마통인 마를 숲으난, “설은 어머님 아바님 우리덜 난 키우젠 흥 게 얼마나 공이 들고 이제 살민 멧헛 살 끼우까.” 양 낫은 끼껴두고 준둥이로 드리는구나. 7만 보난 쓸만헌 건 죽은 마통이 뻗기 또 웃구나. 안사인본 172면.

또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다. 친정에서의 가문장아기는 모든 부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다. 하지만 시댁에서 가문장아기는 금과 은을 자신이 아닌 남편이 직접 찾으려 한다. 즉, 혼자만의 힘으로 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중심으로 재화(財貨)을 찾게끔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남편을 돕는 존재로 자리한다. 즉, 시댁에서의 가문장아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다.¹⁶⁾

전반적으로 가문장아기는 복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복을 그대로 믿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과 분란을 일으켰을 때 그녀에게 새롭게 주어진 운명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인 것이다. 복을 갖고 태어난 그녀가 집에서 쫓겨나고, 가난한 마통이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딘가 맞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문장아기는 단순히 주어진 복만을 가지고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태어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집에서의 실패, 그로 인한 쫓겨남은 가문장아기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새로운 삶을 사는 가문장아기는 이제 더 이상 집안의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는다. 가문이 잘 유지되는 것이 자신도 잘 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에 가문장아기는 부를 다시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전면에 서지 않는다. 가문의 주인이자, 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약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부자가 된 것을 자신의 덕으로 돌리고, 가족들과 대립했다면, 시댁에서의 삶 역시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치부(致富)의 과정을 남편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부를 불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부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16) 뒷날 아주 갑은장아기가, “산중 산암 마 파난 디나 구경 갑주. 죽은 마통이영 가고 보니, 큰마통이 마 파난 딘 누릿누릿 흥 거 잇영 ”이거 무슨건고“ 췌여 보민 통만 물락물락 췌여지고, 셋마통이 마 파는 딘 ”이거 무슨건고“ 허영보민 주냉이 배염 중심만 탕천호고, 죽은 마통이 마 파난 딘 자같이엔 주워 떼껴분 게 봉강 혹 쓸영 보민 금땡이곡 봉강 보민 은땡이곡 둥글둥글 나아온다. 갑은 암쇄에 시꺼 오니 물뭍쉬 나와 간다. 유기전답 나와 간다. 가제 높은 와개집 풍경 들고 와라 치라 잘 살아간다. 안사인본 173면.

있게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부자가 된 가문장아가 하는 일은 바로 ‘부모 찾기’이다. 「심청전」 맹인잔치 화소와도 유사한 이 부분은 가문장아가 쫓겨나고 시댁에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갖게 된 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오만한 생각 때문에 멀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찾음으로써 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살필 수 있게 한다. 그녀에게는 부유함이라는 복은 주어졌지만, 가족과의 화목함은 스스로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녀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했다. 가문장아기는 이런 사실을 집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깨달았고, 혼인 후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복을 남편에게 돌리고, 부모를 다시 찾아 개안(開眼)하게 함으로써 효를 다하는 모습까지 보인다.¹⁷⁾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삶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가문장아기는 ‘부’뿐만 아니라, 그녀가 갖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마저도 가질 수 있게 된다.¹⁸⁾

이렇게 볼 때, 가문장아기에게 ‘쫓겨남’은 그녀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 밑에서 부유하게 자란 그녀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시련임과 동시에 통과 의례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가문장아기는 주어진 복과 만드는 복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전상신으로 좌정하게 된다고 하겠다.

17) 흥를날은 가문장아기가, “우린 영 잘 살아도 날 나아준 설은 어머님 설은 아버님 틀림없이 깨와시 되면 이 올레 저 올레 돌암실 겨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좇아 봐사 홀로고나. 깨와시 잔치나 허여보저.” 안사인본 173면.

18) 이렇게 볼 때, 가문장아기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을 단순히 주체성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물론 분명 전통사회의 다른 여성보다 가문장아기는 주체적이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개척하고, 또 성공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성공을 위해 선택한 것은 결국 남편의 법, 아버지의 법으로의 회귀이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제도화된 또 고정화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삼공본풀이」는 상징계 질서로의 회복을 제시하는 서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성격

이상의 분석을 통해 「삼공본풀이」 서사가 가문장아기의 변화된 가치 추구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문장아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과 자신이 찾아나가는 복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는 인물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가문장아기는 진정한 운명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명이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운명만을 믿거나 여기에 의존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생의 원리를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삶은 결코 단 하나의 복으로만 살 수 없다. 부를 가졌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복을 잘 간직하고, 갖지 못한 복을 위해 항상 정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상신의 성격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전상신은 「삼공본풀이」의 전반부에서 전생을 통해 주어진 운명이 갖는 힘과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노력과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며 살아가야 하는 바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운명과 만들어가는 운명에 대한 균형의 추구가 바로 「삼공본풀이」가 말하는 전상신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주어진 운명에 따라 인간사 모든 일이 결정되고 바꿀 수 없다는 사고는 우리 무속에서 그리고 있는 운명관과 거리가 있다. 무속에서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을 신의 뜻을 빌어 알아보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또 무속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운명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들도 존재한다. 신에게 정성을 올려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면,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공본풀이」와 같은 지역에서 전승되는 「맹감본풀이」를 비롯하여, 호남의 「장자풀이」, 함경도의 「황천혼시」에서는 장자의 수명을 굿을 통해 늘리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미 죽을 팔자를 신에게 정성을 드려 예를 올림으로써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무속에서는 늘 주어진 운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그러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곤 한다. 운명에 대한 이중적 사고가 무속의 기본적인 체계라는 것이다.¹⁹⁾

결국 「삼공본풀이」의 서사는 무속의 사고와 밀접하게 관계 된다 할 수 있다. 무속은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 신의 말을 통해 확인하는 신앙이면서, 그러한 운명을 신에게 드리는 정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종교이기도 하다. 이런 무속의 사고와 「삼공본풀이」 지향은 일치점을 갖는다. 이렇게 「삼공본풀이」가 무속 본연의 운명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와 함께 제주도 큰굿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뿌리, 꽃뿌리, 업뿌리’라 하여 제주도 무속의 근간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근본을 푸는 무가로서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는 제주 큰굿의 시작이자 중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무가는 굿이라는 행위 자체와 큰 관련이 있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의 기원으로 무당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꽃의 기원으로 무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삼공본풀이」는 무당들이 꽃과 같은 주술적 도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고, 또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운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 그리고 「삼공본풀이」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굿의 제차로서 맞물려 구연되면서 그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V. 나오며

본고는 「삼공본풀이」가 갖는 신화적 성격을 밝힌 글이다. 「삼공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에서 주요한 무가이자 제차로 여겨지는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삼공본풀이」가 「내 복에 산다」 유형의 설화와 유사성을 보이기도 하고, 주인공 가문장아가 주체적 여성 신격의 상징처럼 여겨지면 다양한 시각의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다만 분명한 논점이 드러나다 보니 많은 연구가 두 가지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향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삼공본풀이」의 중

19) 「맹감본풀이」를 비롯한 「장자풀이」, 「황천혼시」 등의 연명형 서사무가들은 무속의 신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속에서는 신을 잘 모시고 제향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신을 모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푸짐한 향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이라는 운명의 기준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서대석, 「장자풀이 연구」,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79~380면.

심이라 할 수 있는 신격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작품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삼공본풀이」 서사에 좀 더 집중하여 근본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삼공본풀이」 서사에서 가문장아기는 크게 두 공간에서 활약한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인 ‘친정’이고, 하나는 집을 떠나 새로 정착하고 또 혼인까지 하게 된 ‘시택’이다. 이 두 공간에서 가문장아기가 추구하는 지향은 큰 변화를 보인다. 먼저 친정에서 가문장아기는 그녀에게 주어진 ‘부’라는 복을 자신한다. 이에 부모를 거스르고, 자매와 대립한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부유함이라는 복이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한다. 부는 가졌지만, 화목한 가족은 갖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문장아기는 집에서 쫓겨남을 계기를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마통이와 결혼한 가문장아기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부모와의 대립으로 집안 전체를 파국으로 이끈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바꾸고자 한 것이다. 또한 부를 축적함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돕는다. 즉, 가문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복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결말에서 가문장아기는 부모를 찾기 위한 걸인 잔치까지 열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문장아기는 단순히 주어진 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가는 복에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공본풀이」는 무속에서 바라보는 운명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쫓겨남을 계기로 운명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즉, 운명은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고이다. 실제로 무속에서는 신의 뜻으로 정해진 운명을 중요시 하면서도, 나쁜 운명을 신에게 정성을 다함으로써 바꿀 수 있게 한다. 이런 무속의 운명에 대한 이중적 사고가 「삼공본풀이」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삼공본풀이」가 바로 운명을 관장하는 신인 전상신의 본풀이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문무병, 『제주도큰굿자료 : 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당큰굿』, 제주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풍속무음 : 축사문』 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08.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보고서, 2010.
-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1.
- 허남춘 외, 『서순실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5.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상, 동문선, 1937.

2. 단행본

- 서대석, 「장자풀이 연구」,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3. 논문

- 고은영, 「사록의 의미-「삼공본풀이」와 <지장본풀이>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9집, 영주어문학회, 2018.
-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51집, 배달말학회, 2012.
-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집’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 김석배, 「「내 복에 산다」 형 민담 연구」, 『문학과 언어』 3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2.
-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44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
-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신연우, 「여성 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

- 고전여성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신태수,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무속적 효윤리의 방향」, 『영남학』 30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6.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247면.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정규식, 「한국 여성주의 설화 연구-온달·서동·‘내 복에 산다’ 설화를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14집, 동남어문학회, 2002.
- 정운채, 「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겨레어문학』 19·20집, 겨레어문학회, 1995.
- 정운채,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 힘의 유래 :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25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조영주,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이어쓰기 활동의 문학치료적 의의 연구」, 『겨레어문학』 46집, 겨레어문학회, 2011.
- 하경숙,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징」, 『온지논총』 48집, 온지학회, 2016.
-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집, 국어국문학회, 2008.
- 현승환,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 『탐라문화』 1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황명숙,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 32-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5.
- 황인덕, 「불전계 한국민담 연구」, 『어문연구』 17집, 어문연구학회, 1988.
- 황인덕, 「「내 복에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18집, 어문연구학회,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and Mythical Feature of ‘Abandon’
Motif in “Samgongbonpuri”

Jeong, Je-ho

This article is about “Samgongbonpuri”’s Mythical Feature. Gameunjang-agi play an active two part in “Samgongbonpuri”. One is the parents home and one the in-laws home. Gameunjang-agi's intention point is different in the two spaces. In his house he overconsured his fate. So it is abandoned. She got rich, but lost her family.

The abandoned Gameunjang-agi changes his character. Gameunjang-agi sees the filial piety as a criterion for choosing her spouse. Because she thought it was wrong to confront her parents. Also, when accumulating wealth, the husband becomes the main agent. She chose to increase her wealth while maintaining her family. And she looks for her parents at the end. Gameunjang-agi realized that she was bless with her efforts.

“Samgongbonpuri” is a work in which fate is expressed in shamanism. In shamanism, the fate decided by God's will is important.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changes the bad fortune by raising the spirit to God. The double thought about this destiny appears in “Samgongbonpuri”. So “Samgongbonpuri” is myth about Jeonsangsin.

|Key words| “Samgongbonpuri, Gameunjang-agi, Abandon, Jeonsangsin, fate's orientation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2월 1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12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